

투데이 칼럼

### 제트기 처럼 솟아오르는 한해를 꿈꾼다

1957년 10월4일 소련이 지구를 도는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것은 우주를 바라보는 인류의 시각을 바꾼 대사건이고 커다란 충격이었다.

시속 2만9천km로 96.2분마다 2백 23~9백50km 상공에서 지구를 타원 궤도로 한 바퀴씩 돌며 4개의 안테나로 라디오 신호를 내보내 전 세계 아마추어 햄들 그 신호를 받고 흥분하였다. 58cm의 작은 금속체로 1958년 1월4일까지 지구를 92일간 1천백40회 돌고 나서 배터리 수명이 다해 지구를 추락했는데 스푸트니크는 전 세계인들이 밤 하늘에서 찾는 연인이었다.

당시 초등 3년생이던 나도 라디오 방송과 '학원' 같은 잡지를 통해 소식을 들으며 흥분에 휩싸였다.

전주 교외의 조부모 댁에서 초등 학교를 다니던 나에게 할아버지는 나의 온갖 질문에 항상 성실하게 대답해 주는 백과사전이었다. "이제 인간이 저 달나라에 갈 날도 온대요" 라고 내가 말하자 유교보다는 도교사상에 더 심취하였던 할아버지는 '인간이 달에 갈수도 없고 가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저기 달 속에 계수나무와 토끼가 안 보이냐 인간이 달에 가면 토끼는 어찌되겠냐 우리는 저 성스러운 달을 그대로 두고 여기 지구에 살면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물론 나는 속으로는 납득하지 못했다. 더 넓고 새로운 세계를 갈망하는 꿈이 강렬하였기 때문이었다.

그후 1961년 4월12일 역시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Vostok 1호를 타고 지구궤도를 돌면서 인간의 우주진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막 중학교에 들어간 나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하였다. 그때부터 나도 어떻게 하면 저 높은 하늘에서 마음대로 날아 다니며 온 지구와 우주를 관찰할 수 있을까 꿈꾸기 시작했다. 1947년 페루에서 남태평양까지 뱃목으로 항해를 한 노르웨이의 Thor Heyerdahl 이후 여러 사람이 작은 돛단배로 태평양이나 대서양 단독 횡단 항해를 했다는 기사들을 가끔씩 접하며 세계와 우주에 대한 같은 호기심을 갖고 있던 친구와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공상에 빠지는 일이 잦았다. 그 2에 올라가며 문과와 이과를 택하여 반을 가르게 되어 있었다. 넓은 세상을 보려면 제트기 조종사가 되어 이과를 선택하였다.

할아버지는 1968년 인간의 달 착륙을 안 보시려는듯 내가 고집인 1964년 추석이 돌아 가셨으니 상의는 할 수 없었고 부모에게는 당시

최고 인기가 있던 서울대 공대에 가겠다고 하였다.

내심으로는 제트기를 조종하려면 공군에 가야 되니 공사를 지망하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이를 알고 선생님들이나 부모님 모두 부정적이였다. 전투기 조종사는 생명이 위험한데 손이 귀한 집안이니 다른 길을 가라는 것이였다. 공대는 처음부터 생각이 없었으니 고3에 올라가며 문과반으로 옮겼다. 결국 조종사 못지 않게 제트기로 세계를 돌아다니는 외교관이 차선책으로 생각되어 그 길을 택하게 되었으니 스푸트니크와 '유리 가가린'의 덕분인 듯 하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하늘을 휘젓고 다니는 제트기를 보면 어릴 적 꿈에 찾는다.

2016년 마감을 하루 앞둔 12월30일 새벽 무거운 잠비들을 메고 들고 강원도 하이원 스키장에 갔다. 근래 폭설이 내렸다는 소식이 있었으니 작년어 이은 눈 가뭄이 계속되는 것인지 인조눈으로 슬로프를 만들고 있었다. 인조눈은 잘 미끄러지지 속도가 필요한 선수들은 선호

하나 나 같은 아마추어는 너무 빠르고 딱딱해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도 푸른 하늘을 보며 하얗고 깨끗한 눈 세상에 들어가니 만사 잊고 자연과 교감하는 기분이 좋았다. 가벼운 점심 후 슬로프에 다시 나서니 F15로 보이는 전투기 5대가 스키장 상공에서 편대 비행연습을 하고 있었다. 나란히 날다가 한대씩 좌우로 갈려 하강하거나 갑자기 상공으로 치솟는 등 에어쇼를 발발하는 여러가지 훈련을 하였다. 나는 스키대신 슬로프에 서서 이를 감상하며 어렸을 적의 조종사의 꿈에 다시 빠져들었다.

저 종사들도 잠깐씩 이 스키장을 내려다 볼 것이다. 그러나 음속으로 훈련중이니 일체의 잡념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시속 1천2백38km 이상으로 나는 시속 수십키로 이하로 달리나 모두 순간이나마 일체의 잡념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은 같은 셈이다. 스푸트니크로부터 60년이 되는 2017년을 앞두고 내가 지력으로 달릴 수 있는 최고속 방법인 스키위에 서서 항공속 제트기의 머누버를 보니 꿈속인 듯 행복할 기분이였다.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꿈은 또다른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힘차게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제트기들처럼 2017년 새해에 대한 미국도 새로운 체제하에서 동력을 받아 다시 한번 힘찬 날개 짓을 하게 되기를 기원하며 다시 슬로프로 발을 옮겼다.



최병효 주노르웨이대사, LA총영사역임

독자재언

### 고령화의 그늘이 노인 범죄 증가시킨다

안속으로 지내던 이웃을 살해하려고 이웃집 앞에 농약을 탄 두유를 놓아 두거나 반령생을 함께 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하는 등 올 한해, 노인들의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인구 노령화에 따라 노인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전망할때도 그 방법이 갈수록 잔인하고 흉포해서 우려가 된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노인 수가 5년 사이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년층이 급증한 탓도 있지만 정서적 외로움과 경제 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각종 범죄에 내몰리는 노인들이 크게 늘었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나왔다.

한 통계 자료를 보면 61세 이상 고

령층 범죄자의 범행 동기 중 우발적 인 이유가 전체의 20%를 차지한다.

급속한 노령화 추세에 맞춰 50대 이상인 중장년층 범죄자가 전체 범죄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살인 등 흉악 강력 범죄 검거자 중 51~60세 비중은 2005년 7.5%에서 2014년 14.4%로 거의 배로 증가했다. 61세 이상 비율도 3.1%에서 6.7%로 늘었다.

일본에서 나온 말로 쉽게 흥분하고 감정이 폭발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노인이란 의미로 폭주 노인이란 용어가 만들어졌다.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벌어지고 있다. 노인범죄가 급증하는 것은 이른 정년과 고용 불안, 경

제적 빈곤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위축, 고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폐지를 줌은 노인이 170만 명이 넘 어서다는 통계만 봐도 노인층의 빈곤한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경제적 지위를 상실하면 스스로 슬모였는 인간이 됐다는 상실감을 느낀다. 이런 정서 상태에서 무시 받는 듯한 기분을 느낄 때 순간적인 분노가 폭발해 사고로 이어진다. 아직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나이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6~70대 노인들이 사회에서 밀려 났다는 스트레스를 겪다가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면 순간적으로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말이다.

사회가 경쟁을 숭상하고 열패감과 열등감을 조장하는 문화에서는 폭력

치사가 높아진다. 폭력 치사는 타인에 게도 또한 자기 자신에게도 일어난다. 노인들의 범죄와 함께 자살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그러한 이유이다.

자살은 사회적 타살과 같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범죄예방을 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 젊은 층에서 자주 나타나는 범죄 양상인 폭력 등으로 흉포화 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국민층이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안전망을 확충하고 의견 충돌이나 다툼을 감정이 아닌 법의 테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희선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 사설

### 새해 규모 있는 살림살이를 기대한다

전북도는 새해 살림살이와 관련해 생각이 많아졌다. 나름 생각이 많을 테지만 도민들의 기대를 대변하곤 마음에서 하는 당부이다. 도내 언론사들이 묵은 해를 보내면서 지적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간 운영이 엉망이라는 평가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같은 언급은 괜한 것이 아니다. 전북도가 자체적으로 먼저 밝힌 바도 있으므로 서운하다는 식의 반응은 없어야겠다.

전북도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규모있는 살림살이가 없다면 모든 발전 청사진은 별 의미가 없다. 다들 알고 있는 대로 도내 지자체들은 살림살이 행정에 문제가 많다. 그런 까닭에 지역 전반에 경제적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 다른 광역 시도와 비교해서 경제 성장에 더딘 지역을 꼽으려면 언제나 빠지지 않고 우리 전북 지역이 꼽혔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4년 연속 예산 6조원 시대를 연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은 전혀 적절치 않다.

군산조선소에 대한 대책을 여기다시 물어보고 싶다. 군산조선소를 살리기 위해서는 2조원이 한참 남는 돈이 필요하다는데 전북도

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새해 벽두에는 밝고 희망찬 덕담을 나눠야 제격이지만 전북의 경제 현실은 느긋한 게 아니다. 여러 번 반복했던 말을 또 하거니와 도내 지자체의 살림살이 속내를 들여다보면 답답하다. 재정적으로 다른 시군의 모범이 되리라 믿었던 서부권의 시군 지역이 오히려 문제를 안고 있으니 말이다. 그것은 해당 지역의 단체장과 공무원들의 낮은 청렴도와도 그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도내 자치단체들의 살림살이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불만스러우나 정면교사의 모범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은 무주군과 장수군이 좋은 성적표를 보여줬기에 보여 평가이다. 그동안 큰 실적을 보여 주려고 했는데 일이 잘 알 풀린 시군 지역은 살림살이 내용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체크해봐야 한다. 살림살이의 내실을 위해서 세세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전북도와 시군 지자체는 살림살이를 규모 있게 해야 한다. 새해 도민들은 그것을 바라고 있다.

### 올해 삼락농정 가시적 성과 내야

전북도는 올해 삼락농정의 목표를 반드시 실현해야겠다. 주요 현안에 몰입하겠다고 3대 핵심 과제를 말한 지도 이제 상당한 세월이 지났다. 전북도가 꼽았던 농업분야, 관광분야, 탄소분야는 어느 게 덜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제 각각 중요하다. 그런데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 말해보라면 아무래도 농업 쪽에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다. 우리 지역은 전통적으로 오랜 농도인데다 지금도 많은 농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전에 전북도가 제시했던 삼락농정이 다시 생각나는 새해 벽두이다.

그동안 전북도는 이런저런 농정 구상을 발표하면서 농민과 함께 하고 있음을 알렸다. 삼락농정 방침이 그 대표적이다. 전북도가 말하는 삼락농정이란 전북도가 발표한 그대로이다. '보람 찾는 농민' '제 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이 그 목표이다. 전북도는 오래전 150개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55개 신규 사업도 발굴해 거액을 투자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제 그 실적을 구체적으로 보여줬으면 하는데 올해는 평가

달라도 달라야겠다.

전북도의 말 그대로 삼락농정은 도정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지사가 거듭 밝힌 것을 보아도 그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본보는 삼락농정 비전에 반색하면서도 우려했던 게 있다. 오늘날 농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 갈수록 쇠락의 길을 거듭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농사에 보람을 찾으려는 이가 드물고 농산물이 소비 시장에서 제 값을 받는 경우도 드물다.

전북도가 지난 해 정부로부터 삼락농정에 대해 평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삼락농정의 성공은 농민들이 평가할 일이지 정부의 높은 이력이 판단할 일은 아니다. 전북도의 '삼락농정' 비전은 매우 중요하다. 삼락농정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맞춤형 수출 전략이 필요하고 농생명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었다. 그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지금 이 지면을 빌어 다시 물어보고 싶다. 삼락농정의 목표를 실현하려면 농가에 실이되는 쪽으로 전북도는 과감한 행보를 보여야겠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